

‘사랑의 신호등’으로 가수 데뷔한 광산경찰서 김민성 경사

“노래로 교통질서 홍보 일석이조”

“넓은 길 좁은 길 교차로를 지나고 나면 오르막 내리막이 우리들의 이야기란다. 아차한 번 잘못하면 너도 울고 나도 우는 인생사~”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오전 화순군 화순읍 성음 녹음실. 50대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귀에는 헤드폰을 낀 채 녹음에 몰두하고 있다. 밖으로 흘러나오는 유쾌한 트로트(Trot) 리듬과 트로트 특유의 ‘귀염’은 듣는 이의 어깨를 들쭉이게 한다. 그런데 가사가 좀 특이하다. ‘교차로’, ‘신호등’ 등 교통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 그는 이달 말에 첫 앨범이 나오면 정식 가수가 된다.

“경찰이 교통 단속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 민심만 잃고 계도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 귀에 속속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계도도 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는 생각에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직접 가사 써 음반 취입

김민성(51·예명 민성아)씨는 현재 광산경찰서 신가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사다. 23년간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강력계와 교통계에서 주로 활동한 베테랑이다. 이런 그가 가수가 된다고 하니 주변 모두가 말릴 법도 했지만 되레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경찰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물론 교통질서 등과 관련된 노래를 불러서 호응을 얻는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경사는 본래 가수가 꿈이었지만 음반 취입에 드는 엄청난 비용과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그저 가슴 한 칸에 묵혀두고 있었다. 그러던 김 경사의 ‘까’는 지난 5월 화순에서 열린 군민노래자랑에 출전해 대상을 받으면서 드러났다. 김 경사의 가창력을 높이 평가한 심사위원은 대상 수상 후 김 경사에게 “목소리가 좋는데 가수 할 의향이 없느냐”고 건

지시 불렀고 “곡을 무료로 주겠다”며 설득에 나서 음반작업까지 도와주기로 했다.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가수들과 함께 10여년간 ‘사랑실은 노래 봉사단’에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을 찾아다니며 노래 봉사를 하며 쌓인 ‘내공’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10여년간 ‘노래 봉사단’ 활동

음반 취입을 하기로 했지만 뭔가 허전했다. 세 곡의 노래에 자신만의 철학이 담겨있지 못하다고 판단한 김 경사는 한 곡의 가사를 자신이 직접 쓰기로 했다. 20여년 경찰 생활의 노하우를 담아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사랑의 신호등’이다.

김 경사는 “10년간 교통계에 근무하면서 보니 시민들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너무 많았다. 가장 지키기 쉬운면서도 어려운 신호 지키기에 대한 계도성 가사를 흥겨운 리듬과 결합시켜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앨범을 내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2천만원 가까이 드는 비용은 물론 하루에 200여번 이상 노래 연습을 하면서 인후염까지 걸려 수술 위기까지 처한 것이다. 가족과 동료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가족들은 김 경사가 집에서 편하게 연습을 할 수 있게 가사를 같이 외워 코러스까지 맞춰주며 용기를 북돋아줬다.

“봉사하는 ‘경찰 가수’될 것”

김 경사는 “경찰관이 자기 일이나 충실히 하지 무슨 노래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대회출전도 하지 않았었다”며 “단순한 대중가수에서 벗어나 경찰의 사명감을 노래에 투영시켜 시민 마음속을 파고드는 경찰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15일 오전 화순군 화순읍 성음 녹음실에서 김민성 경사가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 김 경사는 이달 말에 앨범이 나오면 정식 가수가 된다.

/남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빛의 축제’로 열린다

내달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다채로운 행사

다음달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이 ‘빛의 축제’로 치러진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회식은 ‘빛으로 그린 꿈’을 주제 아래 3시간 20분동안 진행된다. 광주를 상징하는 예향·의향·미향의 의미를 살리고 체전의 열정과 감동을 이끌어 내는 사람들의 힘을 ‘광주의 빛’으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공식행사는 선수단 입장식, 개회선언, 성화점화에서 이어 ‘PIGI 프로젝트’라는 특수 영상 장비를 통해 경기장 그라운드 전체를 영상으로 연출하는 ‘PIGI 쇼’ 등 특

수·조명효과로 민주·인권·평화의 도

시는 16일 오후 2시 서구청에서 개최되는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성공체전을 기원하고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시민 등의 화합을 기원하는 인기가수의 화려한 축하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운다. 축하공

연에는 SS501, 소녀시대, 강원래, 박미경 등 인기 정상의 가수들이 참여해 열정의 무대를 펼친다.

이에 앞서 오후 5시 고싸움을 주제로 한 사전 행사와 장애인타악공연과 휠체어댄스 등 식전행사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개막 전 날인 5일 오후 7시에는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각 시·도 선수단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환영과 상공 개최의 의지를 담은 ‘한 마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9일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30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는 전국에서 5천400여명의 선수단·임원들이 참가해 23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룬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에너지 절약 ‘탄소은행’ 가입하세요

광주시 오늘부터 5개구 순회 주민설명회

광주시는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은행’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순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16일 오후 2시 서구청에서 개최되는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별 일정은 남구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남구청 회의실, 북구는 26일 오후 3시 북구청소녀수련관, 동구는 다음 달 16일 오후3시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등이다. 광산구는 10월 중 열린다.

설명회는 아파트입주자 대표, 부녀회장, 관리사무소장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법과 전기와 가스 절약으로 감축된 이산화탄소를 포인트로 환산해 참여 가정에 특별 포인트

를 제공하는 ‘탄소그린카드’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탄소은행에 가입하면 전기는 2007년 대비 5% 이하 절감시 1kWh당 50원, 5% 초과시 1kWh당 70원의 포인트 지급하며, 가스는 5% 이하 절감시 1m당 12원, 5% 초과 절감때는 1m당 2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 앞서 지난달 28일 남구 주월동 국제관광호텔에서 광주시역 아파트 입주자대표 15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은행과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교육했고 12일부터는 버스 승강장 노선안내 전광판에 탄소은행 홍보화면을 게재했다.

탄소은행은 광주시가 지난 4월10일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해 시범 운영중인 사업으로, 현재 1만9천여가구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총장축제 D-20일 행사

준비 상황·프로그램 홍보

총장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선홍)는 오는 20일 오후 총장로 일대에서 ‘제5회 추어의 7080 총장축제’ 준비상황과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총장축제 D-20일 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총장축제 성공기원 점화식을 시작으로 열리는 D-20일 행사는 총장축제 거리 퍼레이드와 본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프리페스티벌 형식으로 열리게 된다.

오는 10월7일부터 6일간 열리는 제5회 총장축제 개막식에는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와 중국 등 외국의 민속, 문화공연팀이 참가하는 거리퍼레이드와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 1970~80년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교복패션쇼’와 총장로 곳곳에서 거리 악사들이 펼치는 ‘골목길 문화재’ 등 예년과 다른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earing aids featuring a cartoon of a knight on a horse, a photo of a hearing aid, and text: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Includes contact info for 본점 (062) 227-9940 and 총장점 (062) 227-9970.

Advertisement for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Services include: 수완지구 상업용지, 전용 가능한 임대료, 우량임야, 건물 매도. Contact: 062-973-9174.

Advertisement for a boiler system. Title: 기름값 절약만으로 심야전기 보일러를 빌려쓰는 제도! 지금 즉시 신청하십시오! Features a table of prices and benefits. Contact: 080-909-0088.